‘미래 일자리’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전남대 ‘한책’ 선정

광주·전남 시도민 독서 캠페인…토론회·공모전 행사 다채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사람들의 노동 주기는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생애의 특정 시기에 집중해서 일하고, 장년층이 되면 일을 하고 쉬는 게 보편적인 생애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교육 기간이 길고,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으로 사회 진출이 늦은데 정년은 빠르기 때문에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짧다.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벌 수 있는 소득인 생애소득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중에서)

한국의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저성장, 인구 마이너스, 인공지능이 맞물리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허리 연령대인 30~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 일자리 변화는 향후 한국 경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그만큼 긴요하다.

전남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18 한책’에 선대인의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인플루엔셜·사진)가 최근 선정됐다. 전남대는 광주·전남 시도민이 함께 읽고 토론할 ‘2018 한책’ 선포식을갖고 향후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2018 한 책’ 선정은 지난 3월 교수, 언론인, 사서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도서 5권을 대상으로 한 달간 지역민의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는 총 1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후보도서는 이기주의 ‘말의 품격’, 김화성의 ‘전라도 천년, 오매! 징허고 오지게 살았네’, 한병철의 ‘타자의 추방’, 구효서 외 ‘풍경소리’ 등이었다.

이번 한책으로 선정된 책은 기존의 기술발전 관점이나 실업 등 노동관점에서가 아니라 한국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일자리 변화를 분석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저자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신문 기자 출신으로, 하버드대학교 케네디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마쳤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지는 산업과 기업들이 생겨나는 한편 새롭게 혜성처럼 성장하고 부상하는 산업과 기업들이 많아진다”면서도 “신흥 산업과 기업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희망적으로 보아서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급 산업용 로봇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5년이 되었을 때 로봇 도입으로 인해 인건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 역시 한국”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일본보다 8%P 높은 33%로, 조사 대상국들의 평균값 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저자가 말하는 한국형 일자리 변화의 7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개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명이 짧아진다’, ‘중간 기술 수준의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 ‘작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생겨난다’, ‘고차원의 사고능력이 필요한 일의 가치가 커진다’, ‘비효율적인 분야의 효율화에 주목하라’, ‘전문직 직업의 하향기업화가 시작된다’ 등이다.

이 같은 변화에 주목하면서 기업과 개인, 사회는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러 번의 생애 전환기에 대비하고 노년의 소득구조와 재무구조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동 없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 기본소득제와 로봇세, 기본자본 도입 등 시스템 구축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남대 도서관(관장 이명규)은 한 책과 관련해 함께 읽을 동반도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독서클럽 운영(7~12월), 지역 문인 작품 전시회(9월), 작가 초청 한 책 콘서트(10월), 한 책 문학기행(10월), 독서후기 공모전(10~11월), 한 책 토론회(11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7월부터 진행될 독서클럽 사업은 광주·전남 톡 홈페이지(http://gjtalk.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대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광주전남이 읽고 톡하다’는 지역사회의 독서문화를 진작하고 문화·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리스인 조르바’ 원전 번역본 나왔다

국내 소개 40여년 만에 출간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대표작 ‘그리스인 조르바’는 많은 이들이 애독서로 꼽는 소설이다. 카잔자키스의 깊은 고찰에서 나온 심오한 사상과 섬세한 감수성, 아름다운 문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에 한국 최초 그리스어 원전을 번역한 ‘그리스인 조르바’(문학과지성사·사진)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국내 대표적인 그리스학 전공자인 유재원 외국어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그간 국내에 출간된 ‘그리스인 조르바’의 번역서는 영어판을 중역하거나 그리스어, 불어, 영어, 한국어를 거친 삼중 번역본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유 교수가 번역한 1975년 국내에 소개된 지 40여년 만에 그리스어 원전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사실 번역에서 한 언어를 거칠수록 의미의 누락이 생기는 건 필연적인 현상이다. ‘문화를 옮기는’ 번역은 해당 언어권과 문화를 모르고서는 정확히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유재원 번역자는 그리스학 정통 전문가로 그리스 아테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그리스학과 교수를 거쳐 지금은 한국-그리스 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게 마련이다. 나와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인연은 각별하다. 1970년대 초반에 어떤 문학잡지에 연재되던 ‘히랍인 조르바’를 읽은 것이 조르바와의 첫 만남인 것으로 기억한다.”

유 교수는 오랫동안 카잔자키스와 조르바의 행적을 짚어 작품 속 공간까지 살폈다. 책은 평생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숨결과 문화까지 살뜰히 담아낸 번역자의 내공이 느껴진다.

유 교수는 “조르바는 내게 삶을 사랑하는 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며 “내가 새삼 이 작품을 새로이 번역하려고 마음먹은 까닭은 평생 그리스학을 전공한 언어학자로서 이 명작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보다 더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라스트 모차르트

이신규

크리스티안 김

박진형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23일 연주회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21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사진〉 제126회 정기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엄마 아빠 추억 속으로’란 주제로 열리며 윤영문 지휘자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44명이 출연한다.

친숙한 합창음악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무대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추억의 만화영화 주제곡을 들려준다. ‘엄마 찾아 삼만리’, ‘들장미 소녀 캔디’, ‘플란다스의 개’, ‘요술공주 밍키’ 등을 만화영상과 함께 선보인다.

두 번째 무대는 7080 팝송을 들려준다. 일본 작곡가 센쥬 아키라(Akira Senju)의 대표곡으로 영국 리베라합창단이 불러 유명해진 곡인 ‘Eternal Light’을 비롯해 1970년 초 팝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린 카펜터스의 대표곡인 ‘Yesterday once more’, 1976년 아바의 디스코 곡 ‘Dancing Queen’을 들려준다.

세 번째 무대는 7080 가요를 들려준다. ‘모란동백’, ‘꿈의 대화’, ‘편지’ 등 7080시대를 풍미했던 노래들을 소년소녀합창단이 재해석해 부른다.

특별 출연 무대도 마련된다. 2004년 창단된 혼성합창단 광주챔버싱어즈가 ‘청산에 살리라’, ‘고향의 봄’, ‘광야에서’ 등 가곡, 동요, 가요를 들려준다. 전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246. /전은재 기자 ej6621@

지난해 인기를 끈 광주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가 ‘클래식 큐레이터:라스트 모차르트’를 주제로 열린다. 21일 오후 6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라스트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후세에도 지속되는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남겨진 유산을 되짚어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고전주의 음악의 기반을 마련한 모차르트의 생애와 천재로 불리던 그가 남긴 음악적 유산들을 알아보고 그의 음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작곡가들(베토벤, 슈만, 포레 등)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해설과 음악으로 풀어낸다.

공연은 ‘테마1 천재의 탄생, 모차르트’, ‘테마2 모차르트의 진실 혹은 거짓’, ‘테마 3 모차르티안 이펙트’로 구성됐다.

‘바이올린 비올리 듀오 K.423 사장조’, ‘피아노 트리오 K.548, 다장조’, ‘사냥 스트링 콰르텟 K.458’ 그리고 베토벤의 ‘스트링 트리오 Op.9, No.2 라장조’, 포레의 ‘피아노 퀸텟 No.2 사단조’를 선보인다.

비올리스트 이신규의 해설을 비롯해 첼리스트 장우리,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김, 김소진, 피아니스트 박진형이 출연한다.전석 2만원. 청소년 무료.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sia 서석문학’ 여름호 ‘상록수’ 심훈 조명

광주에서 발행되는 계간 ‘Asia 서석문학’ 여름호(통권 46호·사진)가 발간됐다.

특집 ‘근대문학 조명’에서는 1930년대를 풍미한 ‘상록수’의 작가 심훈의 문학과 삶을 들여다봤다. 김석문 주간이 36세로 요절한 심훈의 생애와 1935년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현상 공모에서 당선된 장편 ‘상록수’의 작품 세계를 고찰했다. 김 주간은 “독자들의 열렬한 기대와 환호 속에 연재되어 한동안 ‘상록수’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이는 그가 이미 1920년대부터 실천과 문학의 양면에 꾸준히 역량을 다져온 결실의 결과였다”고 평했다.

또한 심훈의 ‘그날이 오면’, ‘조선은 술을 먹인다’, ‘거리의 봄’ 등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작가 탐구’에서는 오덕렬 수필가를 소개했다. 광주 출신 오 수필가는 광주문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수필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대표작 ‘시향’, ‘몽돌’에서 보듯 오 수필가는 전라도방언에 관심이 많아 이를 작품 창작에 십분 활용했다. 최근에는 ‘전라방언 문학 용례사전’을 계획하고 ‘전라도방언의 용례’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문학강좌’에서는 시인인 손광은 전남대 명예교수가 ‘호남 시문학의 선비정신과 시정신’을 주제로 호남의 시문학을 조명했다. 손 교수는 “고래로 호남문학은 한국문학의 산실일 수 있다. 시사(詩史)상 거명되는 가사의 백광홍, 윤고산과 송순, 송강으로부터 이어진 전통과 한국시단의 대표적인 서정시인 영랑과 용아, 시조의 조운, 가람 이병기, 현대시의 신석정, 서정주, 김현승, 이수복, 이동주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이룩해 놓은 작품적 성과와 문학사적 위상은 타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호남적인 특생”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제46회 신인문학상 당선자인 시 부문 김남희, 김희중, 강원구, 민정철, 박장유 씨의 당선작품 및 당선소감, 심사평 등이 수록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